

##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5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감사: 지난주일 은혜로운 야외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성령강림절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5. 성경통독: 제10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2일) 시작되었습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6/26(수) 8시 Zoom 기도회(빌립보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은 유급자 권사님께서 준비하여 대접하십니다.
8.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봉헌 (\$ 3,113.00)

-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급자, 임현선,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 감 사:**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Mary & Kerry.
- 주일헌금:** 김반석, 박병기, 오근희,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25호 2024년 6월 23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조은미 사모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 인도자
- 찬 양 Anthem .....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편 1:1-6 ..... 다 같이
- 설 교 Sermon .....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 ..... 조병우 목사
- 봉헌송 Hymn ..... 449장 예수 따라가며(1,3,5절) .....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 찬송가 213장 (4절) .....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 이 번 주 섬 김 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은미 사모	조병우 목사	유금자 권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조병기 권사	박종님 전도사	조은미 사모	박종님 전도사



### “진정한 자유인으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1863.1.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던 탓에 텍사스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해방된 것을 모르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 선언이 있는 후 '2년 반'이 지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준티스'(Juneteenth, 1865.6.19.)입니다.

자유인도 노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해방선언”을 한지 거의 25년이 지난 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아직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롬 6:15). 그래서 바울은 무엇에든 우리가 종속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므로(요 8:34),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섬겼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실제로 그것을 누립시다!

Even though President Lincoln issu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January 1, 1863), due to the lack of media, slaves in Texas continued to live as slaves without knowing that they had been freed. In the end, it was only 'two and a half years' after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at they learned that they had been liberated, and the day to commemorate this is 'Juneteenth' (June 19, 1865).

Even free people can live like slaves. Almost 25 years after Jesus declared “liberation from sin” on the cross, Paul wrote a letter to the believers in Rome. Some believers have not yet understood what it means to be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They thought they could continue sinning because they remained in grace (Romans 6:15). So, Paul reminded us that if we are subordinate to anything, it becomes our master (John 8:34), so if we commit sin, we become slaves of sin. In the past we served sin, but now we commit ourselves to living righteous lives because of the freedom Jesus gave us. We have already changed our status to free people, so let's actually enjoy it!